

# 올 1학기 고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강

### 고교학점제 대비 대학·기관과 협조 광주교육청, 92개 온·오프라인 강좌 전남교육청, 24개 과목 426명 수강

광주시교육청이 고등학교 대상 '2023학년도 1학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강했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1학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92개의 강좌가 개설돼 총 117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41개 강좌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51개의 강좌가 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



광주시교육청이 개강한 '고등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수강 희망 학생이 적거나 가르칠 교사의 부족 등으로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희소 과목 등을 학교 간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이다. 정규 일과 시간 내, 방과 후 시간, 주말에 수업이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 지역 대학 및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1학기에는 광주교대·서영대·조선대·조선간호대·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등과 협력해 해당 과목의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화학 실험, 창의 경영, 연극 제작 실습, 영상 제작의 이해, 교육학, 기초 간호 임상 실무, 동아시안사,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24개 다양한 강좌를 개설했다.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담당자는 "이번 1학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강과 더불어 오는 9월 온라인학교가 정식 개교를 하게 되면 고교학점제 대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규 일

과시간 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은 줄어들고 과목 선택권을 더욱 다양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김선성 과장은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교육청도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 2023학년도 1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24과목 32개 강좌가 개설됐으며 426명이 수강하고 있다. 지난해 1학기 19개 강좌에 비해 13개 강좌가 늘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개설 과목과 수강생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는 대학 교육처럼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방향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오는 2025년 전면 도입된다. 도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좌당 수강인원을 최대 15명으로 제한해 실시간 쌍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개설된 과목은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 공학 일반,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국제 경제, 국제 정치 등 전문교과 영역이다. 정선영 전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도서벽지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교육 환경에서 교육력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교육청, '2024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교육부와 공동추진

### 장 차관 "미래교육 위해 적극 협조"

전남도교육청이 '2024년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를 교육부와 공동 추진한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3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The Bett Show (더 베스트 쇼)' 박람회에 참석, 장상운 교육부차관과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2024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공동 추진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이 '공생의 교육! 사람, 디지털, 생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개최 예정인 '2024년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공동 추진을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지역에서 시작하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전남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2024년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가 전남 미래교육의 전환이 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남교육청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중(오른쪽 가운데) 전남도교육감과 장상운 교육부(왼쪽 가운데) 차관이 영국 런던에서 현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 추진에 전남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전남교육청이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2024년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

회 준비를 위해 관련 부서 담당자로 방문단을 꾸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인 'The Bett Show (British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 Show)' 현장을 방문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 조선대, 주얼리 산업 고부가가치화·경쟁력 강화

### 중기부 '시군구 연구산업육성사업' 선정, 내년까지 추진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는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시군구 연구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됐다 고 3일 밝혔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총괄책임자 주성민 특임교수)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의 명칭은 '주얼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이 주도해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연고분야 사업 모델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조선대는 전국 32개 신청과제 가운데 광주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오는 2024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도심형 주얼리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도 힘을 보탬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광주 동구지역을 지속가능한 주얼리 산업의 고도화 및 새로운 지역 생태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얼리 신제품개발, 기업성장 컨설팅을 위한 혁신화&성장촉진사업과 공동브랜드 구축, 제품감정·감별교육, 3D디자인 트렌드 교육과 기술지도 등을 통한 인식개선사업, 주얼리 시제품 제작 등이다.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인구감소, 상권 침체가 심화하는 동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광주시, 동구, 광주테크노파크 등 지역자문단과 조선대를 비롯한 3개 대학과 한 국주얼리산업연합회 등으로 기획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다. 최환철 조선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번에 선정된 시군구 연구산업육성사업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산 상생협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동강대, 미래 지능형 모빌리티 인력 양성 속도

### 전자공고 학생 40여명 대상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교육'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미래 지능형 e-모빌리티(Electronic mobility)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련분야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낸다. 동강대 지역혁신플랫폼사업단(단장 김명수)은 최근 광주 전자공고 자동화기계과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래형 모빌리티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재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강대는 수년 전부터 e-모빌리티에 관심을 갖고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정부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모빌리티는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 운송 분야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동차와 이륜차 등 1·2인승 이동수단이다. 동강대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사업'에 광주 전남대학 중 유일하게 참여하고 교육부 주관의 '2022년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 시구 사업'에도 선정됐다.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경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계 고교와 손을 잡고 미래형 운송기기와 에너지 산업 등 지역전략 산업 전문가를 키우고 기업 취업까지 연계한다. 이날 동강대는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실에서 전자공고 학생들에게 3D 프린터를 활용한 모빌리티 부품 출력 제작 실습을 진행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율주행의 최신 기술 동향과 트렌드에 대해 설명했다. 또 AI 자율주행 코딩과 운송 실습에 이어 다양한 센서나 부품을 연결하고 입출력, 중앙처리장치가 포함된 아두이노(arduino) 키트 활용법 등을 소개하며 전자공고 학생들에게 관련 분야의 관심도를 한층 높였다. 지역혁신플랫폼사업단 김명수 단장은 "미래 모빌리티 인재로 키 나갈 지역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시야를 넓히고 취업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며 "향후 신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키 나가는데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대, 국내 최초 방재안전학 박사 2명 배출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국내 최초로 방재안전학 박사 2명을 배출했다. 광주대학교는 최근 광주 JS웨딩홀에서 김동진 총장을 비롯해 대학원 방재안전학과 송창영 주임교수, 대학원생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혜(앞줄 왼쪽 두번째), 배충휴(나섯 번째)씨의 방재안전학 박사 학위 취득 축하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내 최초로 방재안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광주대는 밝혔다. 김동진 총장은 "두 분의 높은 학문적 역량과

꾸준한 연구 노력이 방재안전 분야 최초 박사 학위 취득이라는 결실을 맺은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한민국의 안전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학문적 성취에 더욱 매진해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광주대학교 대학원 방재안전학과는 우수한 커리큘럼과 다양한 방재안전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전국의 인재들을 광주로 불러들이는 등 광주대학교와 지역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문의 전화

#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